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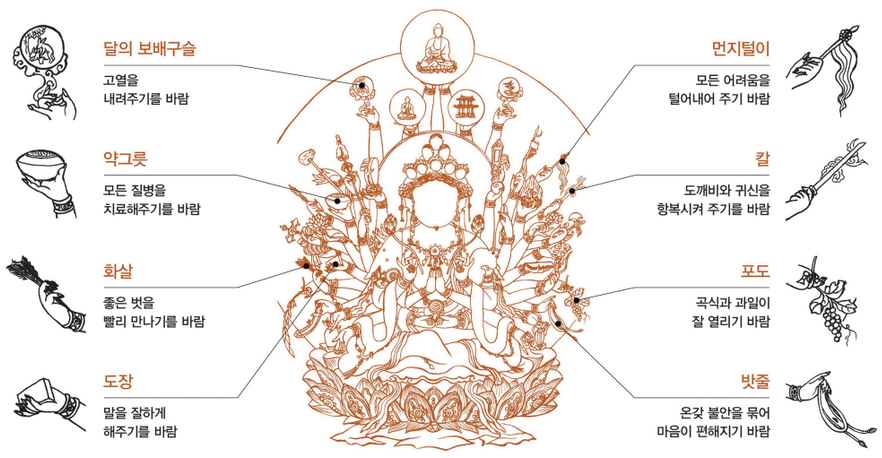
국보 제235호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의 변상도 부분. 세밀하고 정교한 고려사경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보물 제2015호 '천수관음보살도' (사진 위)와 적외선 촬영을 통해 확인된 밑그림과 손의 지물들을 설명한 그림.(사진 아래)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천수관음도상은 이 불화가 유일하다.


보물 제523-3호 〈석보상절〉 권11


보물 제935호 〈월인석보〉 권11


국보 제134호 '일광삼존상'. 삼국시대 금동불로 섬세함이 돋보인다.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아쉽게도 선재동자상이 훼손돼 사라졌다.

'이건희 컬렉션' 공개… '마스터피스' 성보 만난다

국립중앙박물관 2층 서화실서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섬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삼국시대 금동불 '일광삼존상' 부터 고려불화 '천수관음보살도', 고려사경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까지 故 이건희(1942~2020) 삼성그룹 회장이 소장했던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故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을 특별 공개하는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故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개최한다"고 7월 20일 밝혔다. 전시실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2층 서화실에 마련됐으며, 전시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엄선된 명품 문화유산 공개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문화유산은 9797건 2만1600여 점으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그 시대와 분야가 다양하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기증품 중 엄선된 대표작 45건 77점이 특별 공개된다.

이번 전시는 고인이 생전에 보여준 문화유산에 대한 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故 이건희 회장은 2004년 삼성미술관 리움 개관식 축사에서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은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 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지녔던 故 이건희 회장의 전통 문화유산 컬렉션은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나라 전 시기와 전 분야를 포괄한다"면서 "이번 전시에서는 청동기시대 · 초기철기시대 토기와 청동기, 삼국시대 금동불 · 토기, 고려시대 전적 · 사경 · 불교미술품 · 청자, 조선시대 전적 · 회화 · 도자 · 목가구 등 이건희 컬렉션의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터피스' 성보들 단연 압권

특별 공개되는 45건의 故 이건희 기증 유물 중 20건이 불교 성보문화재 혹은 불교 관련 문화재들이다.

그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삼국시대 금동불의 섬세함을 보여주는 '일광삼존상' (국보 제134호)과 빼어난 글씨와 그림이 담긴 고려 사경(寫經)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국보 제235호), 현존 유일의 고려불화 '천수관음보살도' (보물 제2015호) · '수월관음도' 등이다.

'일광삼존상' 은 삼국시대인 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8.8cm의 작은 크기지만 세부 표현들이 매우 섬세하다. 함께 전시되는 6점의 불 · 보살상들은 모두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성보문화재로 불상 변천을 확인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은 섬세한 금선으로 〈화엄경〉의 내용을 장엄하게 표현해 눈길을 끈다. 특히 도상에 대한 쉽고 친절한 해설도 담겨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함께 전시되는 〈묘법연화경〉 권1-7과 〈불공견삭신변진언경〉 권13도 모두 국보로 고려시대 사경의 빼어난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봉업사' 가 새겨진 향로(보물 제1414호), '경선사' 가 새겨진 청동북(보물 제2008호) 등 사찰명이 새겨진 고려시대 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노력과 결실을 보여주는 〈석보상절 권11〉(보물 제523-3호)과 〈월인석보 권11 · 12〉(보물 제935호), 〈월인석보 권17 · 18〉을 전시한다.



국립중앙박물관 2층 서화관에 마련된 전시실 입구.

2만1600점 중 45점 선별해 공개
일광삼존상 등 성보20점 포함돼
고려불화, 적외선과 X-선 촬영
밑그림 등 터치스크린으로 확인
방역 지침따라 예약관람 가능해


이건희 기증전 전시실 내 마련된 불상 전시 부스.

현대 기술로 확인한 고려불화

故 이건희 회장은 국외 유출 문화재인 고려불화가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이번 기증전에서는 고려불화 '천수관음보살도' 와 '수월관음도' 2점이 공개된다. 보물로 지정된 '천수관음보살도' 는 현존 고려불화 중 유일한 천수관음 도상으로 그 의미가 크다. 도상의 천수관음보살은 11면의 얼굴과 44개의 손을 지닌 모습으로 손에는 각각의 지물이 들려있다.

'수월관음도' 는 고려불화 특유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수작이나 훼손돼 함께 있어야 할 선재동자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고려불화의 세부적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적외선과 X선 촬영 사진을 터치스크린 영상으로 제시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번 촬영을 통해 '천수관음보살도' 에서는 천수관음보살의 여러 손의 모양, 손바닥과 광배에 그려진 눈, 손의 지물들이 확인됐다. X-선 사진으로는 '천수관음보살도' 와 '수월관음도' 의 채색 방식 및 안료를 확인했으며, 우리나라 전통회화의 채색기법 중 하나인 배채법(背彩法, 종이의 뒷면에 색을 칠하여 은은한 느낌이 앞으로 배어나오게 하는 화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녹색의 석록, 푸른색의 석청, 백색의 연백(鉛白)과 붉은색의 진사 등 광물성 안료도 확인됐다.

다양한 시대 · 분야 문화재도

이번 故 이건희 회장 기증전은 시대와 분야의 스펙트럼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청동기시대 토기로 산화철을 발라서 붉은 광택이 아름다운 '붉은 간토기', 초기철기시대 청동기로 당시 권력을 상징하는 '청동 방울' (국보 제255호), 삼국시대 배 모양을 추측할 수 있는 '배 모양 토기', 삼국시대 뛰어난 금세공 기술 수준을 알 수 있는 '쌍용무늬 칼 손잡이 장식' (보물 제776호), 조선 백자로 넉넉한 기형과 문양이 조화로운 '백자 청화 산수무늬 병' (보물 제1390호)은 당대 최고의 기술과 디자인을 보여주는 명품이다.

또한 기증품 중 독보적 가치를 지닌 '인왕제색도' (국보 제216호)는 76세의 노대가(老大家) 겸재 정선(1676~1759)이 눈길과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던 인왕산 구석구석을 자신감 있는 필치로 담아낸 최고의 역작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인왕제색도' 에 그려진 치마바위, 범바위, 수성동계곡 등 인왕산 명소와 평소 보기 힘든 비가 개는 인왕산 풍경을 담은 영상 '인왕산을 거닐다' 를 98인치 대형 화면으로 제공해 기증품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편, 이번 전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30분 단위로 관람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한다. 누리집에서 상설전시 예약과는 별도로 예약 후 입장할 수 있다. 전시 도록은 발간하지 않고 대신 전시품 이미지와 자료를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 제공할 예정이다.